

무공저

우리찾잔 아이들

저도 모르게 '밀항'이라는 사 고를 친 중학교 3학년생이 있다. 경북 경산의 이 소년은 지난 여름 방학식을 마치고 무작정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엉망으로 나온 성적표를 들고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혼날까 겁이 나 일단 피하고 보자 싶었던 소년은 부산에 도착하자 정박 중이던 여객선에 몰래 올라탔는데 "제 주도 좀 가겠지" 했던 여객선은 일본 시모노세키 행 국제선이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소년은 출항 4시간 후 일본에 거의 도착할 즈음 선원에게 발견되고, 여객선이 부산으로 귀항한 후 경찰에 인계되었다.



종 상 <청계사 회주>

자랐는데 캠퍼스의 학생들을 보니 하나같이 자신보다 우수하면 우수했지 못하지가 않은 것이다. 생전 안 받아본 B나 C를 받으면 서 태어나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한다. 그리고는 그 낯선 경험을 감당하지 못해 엉뚱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는 간단 한 이치를 배우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를 모르고 자란 엘리트 학생들을 '우리찾잔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우리찾잔은 예쁘지만 충격에 약하다. 겉보기에 완벽한 우등생들이 난관에 부딪치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빚댄 용어이다.

학창시절 '성적' 때문에 가슴 졸인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공부를 잘 하면 잘하는 대로, 못

남들에게 저본 적이 없는 이들은 뒤지는 것을 못 참는다. 행여 B라도 받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

실패 모르고 자란 엘리트 학생들, 넘어져야 비로소 일어나는 법 배우

하면 못 하는 대로 성적 걱정은 대개 성장기의 가장 큰 심리적 부담이다. 그래서 커닝을 하기도 하고, 성적표를 받고도 안 받은 척 부모를 속이기도 하며, 심하게는 하룻밤 가품을 감행하기도 한 추억들이 있다. 잘한 행동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잘못, 실수, 일탈을 통해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이 성장의 자연스런 과정이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키워진 아이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 넘어져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우수 학생으로 주목 받다가 모두의 예상대로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다.

자신만만하던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어리둥절해진다. "네가 최고!"라는 칭찬을 당연시하며

지"하는 대신 "나는 낙오자"라며 세상이 끝난 듯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는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문화가 문제이다. 자녀를 1등으로 만들려는 엘리트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을 막고 있다.

아이의 주위를 맴돌며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개입해 해결해주는 헬리콥터 부모가 이들이다.

부모가 계속 손잡고 있으니 아이는 넘어질 수가 없고, 일어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야단맞는 것 피하려다 밀항 사고를 친 소년은 이번엔 무엇을 배웠을까? "때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괜한 고생 안하려면 공부할 열심히 하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처님의 불가사의 지혜로 자비와 광명...

불구(佛具)의 근본서원을 담아 생명력을 불어 넣는 의식

지난 7월 16일 사시기도 끝나고 불교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의식으로 개안의식(開眼儀式)이라고 하는 점안식을 성대하게 거행 하였다.

점안의식은 불상이나 불화, 만다라, 석탑, 불단 등을 새로 만들거나 개수 하였을 때 반드시 이에 공양하고 불구(佛具)의 근본서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행하게 된다.

유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 심안, 무진안 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빌고 권공, 예배하고 오색실을 사용하여 부처님의 천안통과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속명통, 누진통, 신통력, 응맹력, 자비력, 여래력이 청정하게 성취되기를 기원한 뒤 불상의 눈을 붓으로 그리게 된다.

이렇듯 청계사 사대전왕, 비전상, 12지신

상 및 청계사에 모셔진 부처님들의 점안식에 주지 성행스님과 총무 성담, 정다, 무원, 성완, 명원스님 집전으로 신도들 모두가 참석 한 가운데 부처님의 불가사의 묘법으로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지혜와 육신을 살릴 복덕을 주시사하는 발원과 함께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공덕이 두루 회향되도록 붉은 팔과 오색실을 감아서 부처님 앞에 올려놓

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상징하는 오색실과 붉은팔을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주지스님은 '청계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청계사가 신성한 장소이며 청정 도량임을 깨닫게 하고 싶고 청계사가 신도들의 실천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회향의 말을 전하였다.

<글·사진 황청량심>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는 의식을 하고 있는 주지스님과 집전에 동참하고 있는 불자들.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16사탕수수를 망친 사람

복의 근본을 지어 놓을 때 좋은 결과 기대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려면 씨앗이 트고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물이 너무 많아 질척질척한 땅이나, 물기가 없는 메마른 땅에서 싹은 트지 않는다. 적당한 수분과 온도가 주어지면 싹을 틔울 수 있다.

○...열대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열대기후가 필요하다. 만약 한대지방에 옮겨 놓는다면 그 식물은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같은 이치이다. 어떤 문화가 성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적당한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문화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국인에 맞는 문화가 있다.

○...자신의 것을 토대로 하여 다른 문화를

옛날 두 농부가 살았다. 두 사람은 사탕수수를 심으면서 서로 맹세하였다.

"좋은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좋지 못한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벌을 주자."

그 때 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사탕수수는 아주 달다. 만일 즙을 짜서 그 나무에 다시 주면 그 맛은 다른 것보다 뛰어나겠지.'

곧 사탕수수를 눌러 그 즙을 짜서 나무에 쏟고는 맛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 종자만 못 쓰게 되고 많은 사탕수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해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재물과 권력을 위해 힘을 다하고, 세력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헐박하고 재물을 빼앗는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복의 근본을 지어 놓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것은 마치 사탕수수를 짜서 이것저것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두 문화의 조화와 성숙으로 더 훌륭한 문화가 꽃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자존감의 상실과

함께 잘못 이식된 퇴폐적인 문화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절실하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 : 10,000원 100부 : 20,000원

-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문성행 50부
- ♣ 안양교도소 김형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수원구치소 손영호 50부, 김종정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김희용 50부, 공은자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박유진 150부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 : 청계사 출판부)

백 중

- 입 재 : 불기 2559년 7월 11일(음력 5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회 향 : 불기 2559년 8월 28일(음력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기도안내 : 초제~6제는 매주 금요일
- 기도비 : 5만원
- 영가위패 : 1위당 5천원
- 영가 등 : 1만원
- 준비물 : 쌀 3되

(제일 때마다 영가에게 공양을 올리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치약, 칫솔, 비누, 세숫대야, 양말, 수건, 영가 옷 등은 회향일(음 7월 15일)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영가 옷(종이 옷)은 신도회에서 판매합니다.

칠석기도

- 일 시 : 불기 2559년 8월 20일(음력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3만원

• 차량안내 : 백중기도 입재와 회향, 칠석 때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까지 인덕원 전철역 3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미가참치 앞에서 수시로 질 버스를 운행합니다.

• 문의 : 중무소 (031) 426-2221, 2348

• 은행계좌 : 109-030451-01-055 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송금시 중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학업 성취 정진기도

50일 특별기도

- 일 시 :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기도 후 108 염주 만들기(주지스님 집전)

수능입재 70일 특별기도

- 일 시 :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예불 후 다라니 사경(13일부터 7일간 매일 1장씩) 10월 19일 오후 2시 사경지 7장과 소원지 소각

21일 기도

- 일 시 :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9시~ 다음날 새벽4시 경주 석굴암 철야 특별기도
- 출 발 : 오후2시 인덕원 미가참치앞
- 동참금 : 10만원

7일 사중 철야기도

- 일 시 : 11월 6일 금요일 저녁 9시~ 새벽4시(단주, 다라니 배부)

회향기도

- 일 시 : 11월 12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선원제전집도서

선의 근본이 되는 선장을 만들고 총괄하여 쓴 서문

중국의 규봉스님이 불교 교리를 개론한 <선원제전집 도서(禪源諸詮集都序)>는 말그대로 '선원제전집'의 서문으로 줄여서 <도서>라 불리우며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1200여년전 선종과 교종으로 분열되던 중국 당나라 때 규봉스님이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책을 통해 선과 교는 서로 수행을 도와 성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규봉스님의 이같은 노력은 결국 선교통합을 이끌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된다. 배우기 어려운 이 과정을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덕민스님의 강설로 입문할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선원제전집도서 권상(禪源諸詮集都序卷上)

[설의] 여덟 가지의 식이란,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인 안식(眼識), 귀로 듣고 아는 마음인 이식(耳識), 코로 냄새 맡아 아는 마음인 비식(鼻識), 혀로 맛보아 아는 마음인 설식(舌識), 몸의 감촉으로 아는 신식(身識), 이 다섯 가지의 아는 마음을 전(前) 5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으로 모든 대상들을 인식해 아는 마음인 의식(意識)은 제6식, '나'에 대한 근본적인 집착과 방어본능을 제7식 말라야식,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의식지면에 저장되어 있다가 인연이 맞아들면 발현한다고 하여 장식(藏識)이라 부르는 제8식 아뢰야식이 있습니다. 보통 유식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

法性身大涅槃也라하시니 解深密等數十本經과 瑜伽唯識數百卷論의 所說之理가 不出此也니라 이 8식 외에 도무지 싫다운 법이 없다. 질문이다. 어떻게 변화하는가? 답이다. 나와 법(대상)을 분별하는 혼수의 힘 때문에 모든 식들이 생겨날 때에는 변화하여 나와 법이 따로 있는 듯하다. 6식과 7식이 무명이 덮인 까닭으로 이 집착을 반영하여 싫다운 나와 싫다운 법을 삼는다. 마치 병들고(병이 위중하면 마음이 혼미하여 다른 색과 인물을 본다.) 꿈꾸는 자(꿈과 망상에서 보는 바도 가히 안다.)가 병과 꿈의 힘으로 마음에 갖가지 바깥 경계의 모습들이

수행장애, 바른법 방해, 번뇌장, 소지장 근본적인 집착과 방어본능 말라야식 여래의 본성, 불성까지 포함한 아뢰야식

는 것이 바로 제8식입니다. 아뢰야식에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래의 본성, 불성(佛性)까지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래장식(如來藏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세간(器世間)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내가 담겨있는 그릇과도 같은 세상이란 뜻입니다.

眼緣色하며 乃至七緣見하고 八緣根種器界也라

눈은 색을 반영하며 7식은 견해를 반영하고 8식은 근기의 종류와 기세간을 반영한다.

[설의]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간단히 말했네요. 안식은 눈에 보이는 색깔을 반영하여 생기고, 제7식은 '나'라는 견해를 반영하여 생기고, 제8식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업력(業力)에 의한 근기와 자신이 처한 환경(기세간)을 바라보는 눈에 의해 변화해 생깁니다.

此八識外에 都無實法이니라 問이라 如何變耶아 答이라 我法分別熏習力故로 諸識이 生時에 變異我法이라 六七二識이 無明이 覆故로 緣此執爲實我實法하나니 如患(病重心昏見異色人物)夢(夢想所見可知)者가 夢夢力故로 心似種種外境相이 現이어든 夢時에 執爲實有外物이라가 寤來에 方知唯夢所變인달하야 我此身相과 及外世界도 亦復如是하야 唯識所變이어늘 迷故로 執有我及諸境이라가 既悟에 本無我法이요 唯有心識이니 遂依此二空之智하야 修唯識觀과 及六度四攝等行하야 漸漸伏斷煩惱所知二障하고 證二空所顯眞如하야 十地圓滿에 轉八識하야 成四智菩提也요 眞如障盡에 成

나타나는 것 같으나, 꿈 꿀 때엔 집착하여 실제로 바깥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깨어나면 바야흐로 오직 꿈에서 변한 바임을 아는 것과 같아서 이 몸의 모습과 바깥세상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오직 식이 변한 바이다. 미혹한 까닭으로 집착하여 나와 모든 경계가 있다고 하다가, 곧 깨달음에 본래 나도 법도 없고 오직 심식(心識)이 있을 뿐이다. 마침내 이 두 가지 공(空 : 我空과 法空)의 지혜를 의지하여 유식관(唯識觀)과 육바라밀·사섭법(四攝法)등의 행을 수행하여 점점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조복 받아 끊고 이공(二空)의 드러난바 진여(眞如)를 증득하여 심지(心地)를 원만히 함에 8식을 돌이켜 네 가지 지혜의 보리를 이루고 진여의 장애가 다함에 법성신(法性身)의 대열반을 이룬다. 해심밀경 등 수십 본의 경전과 유가 유식의 수백 권의 논서(論書)에 말한바 이치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선문염송' 강설

제477강 馬祖의 即心即佛과 絕四句 (1) (마조의 즉심즉불과 절사구)

이번 이야기는 馬(마)대사의 即心即佛(즉심즉불)이다.
「마대에게 스님이 와서 물었다.
「스님께서 어찌하여 即心(즉심)이 即佛(즉불)이라 하십니까?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울음이 그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非心非佛(비심비불)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리키려 합니까?
「저에게 이것이 아니라 하겠다.
「문득 그 안에서 사람이 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에게 大道(대도)를 깨달으라 하였다.
諸佛(제불)의 施設(시설)은 모두가 方便(방편)이다. 배 아픈 사람에게 배 아픈 약을 주고 머리 아픈 사람에겐 머리 아픈 약을 준다. 그러니 사람과 때 장소에 따라서 법문이 달라진다.

다음 이야기는 馬祖(마조)의 無心道話(무심도화)이다.
「마조스님께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即心(즉심)이 即佛(즉불)이 아니라,
「어떤 것이 道(도)입니까?
「無心(무심)이 是道(시도)이 아니라,
「佛(불)과 道(도)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道(도)는 손을 편 것 같고 佛(불)은 주먹을 쥔 것과 같다. 하였다.
「나야스님이 말하였다.
「옛 사람의 방편이 옳지 못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이 부처냐?> 묻는다면 나는 <岩前(암전)에 多瑞草(다서초)다>하고 <어떤 것이 도냐?>하면 <三間下(삼간하)에 足靈苗(족영묘)다>하며, <부처와 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나?>하면 <數片白雲(수편백운)은 籠古寺(농고사)하고 一條綠水(일조록수)는 遶青山(요청산)한다>할 것이다. 하였다. 이것이 소위 拈(남)·微(징)·頌(송)·歌(가)·代(대)·別(별) 가운데 代法門(대법문)이다.
寒岩(한암)스님은 상당하여 이 화두를 들고 '사람을 쫓아 쫓을 수 없고 사람을 꾸짖되 꾸짖을 수 없다. 만약 高盲(고맹)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살렸다 죽였다 하는 약을 써야 된다. 대중들이여 말해보라 무슨 교섭이 있는가. 喝一灼然(갈일작연)이로다. 有什麼(유시마)오' 하였다.
「마조스님에게 龐居士(방거사)가 와서 물었다.
「萬法(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한 입으로 西江水(서강수)를 다 마셔버린다면 나에게 말하겠다.
「言下(언하)에 거사가 도를 깨달았다.
알 수 없는 말이다. 西江水(서강수)와 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 없는 바다는 一味大天(일미대천)이라 육지까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陸海空軍(육해공군)이 다 없어져 버리면 天下(천하)는 泰平(태평)하여 無戰盛歲(무전성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投子青(투자청)이 '曠別(광별)의 父母(부모)를 모시게 되면 竭功奉供(갈력봉공)하라' 하였고 石門(석문)스님은 '西江吸盡無消適(서강흡진무연적)하니 誰解喉門鑰要津(수해후문쇄요진)이리오' 하였다. 서강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목구멍이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말이다.
天童(천동)이 '강물을 다 마셔버리면 馬祖(마조)는 荒草(황초)에 들지 않아 三千利海(삼천리해)가 一成秋(일성추)하여 明月珊瑚(명월산호)가 冷相照(냉상조)하리라' 하고 保寧(보령)스님은 '바람결 햇빛 아래 시체가 들어오니 울면서 나무꾼에게 물을 땅을 묻는다. 참을성 없는 말많은 늙은이 응달양달 잡는 곳에 알맞게 묻었도다. 하였다. 또 密庵(밀암)스님은 '西江水(서강수)를 다 마셔 한 방울도 없으니 당당한 대장부가 突出(돌출)하였도다. 세상에 오랑캐 수염이 붉은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수염이 붉은 오랑캐를 보겠도다. 하였다. 오랑캐 수염이 붉은 것은 마조이고 붉은 오랑캐는 방거사다.'>

사람, 때,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설법

뉴스 & 뉴스

임재에서 회향까지 물 흐르듯 여여하게



폭폭 찌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던 지난 8월 5일 청계사 야외법당에서 주지성행스님과 명원스님, 입시생 학부모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학입학 수학능력평가 학업성취 100일기도 임재를 봉행했다.

각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절을 찾아 예불 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학업성취 발원문과 소원성취 발원문을 읽으며 자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하기를 발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주지성행스님은 "12년 동안의 학습 결과를 맞이하는 날이니, 많이 채우고 싶은 것이 다 되는 것 아니며 어느 한쪽으로 넘겨쳐나 기울지 않는 적당한 정도로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니 나누고 비우고 참회기도 하라,"고 당부하며 "100일 동안 부모에게도 물어야할 숙제가 생겼으니 회향일 까지 물 흐르듯 여여하고 여여하고 또 여여하라."고 법문했다. 선불장으로 자리를 옮겨 학부모들이 절 생활에 적응하여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명원스

님은 법당예절과 예불시 기본예절 강의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해법 학원(허정윤선생님)에서 수행생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수시입시 설명회시간을 가졌다. 기도 하는 시간은 매일 사시마지기도와 오후 2시 무원스님의 집전으로 수행생을 위한 특별기도가 봉행되고, 백일기도 내내 청계사 신도회에서 기도에 불편함 없도록 봉사에 임할 예정이다. <글 서용화수>

제5대 신도회 임원진은 회장 홍무상행, 부회장 서상락행, 최진범등, 지법륜성, 김만범심, 안자운, 총무 강혜명각, 교무 김범등지, 재무 김범시아, 서기 조수경성, 기획 심무량성, 홍보 이은순로 이루어졌다. <글 황청량심>

제5대 회장 및 임원진 취임식



지난 7월 16일 청계사 제 5대 회장 및 임원진이 선출 됐다. 이날 주지스님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청계사가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하기 위한 행보로 임원진들이 수고해 주며 보살상을 실천하고 신수봉행 정신으로 봉사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했다. 5대 회장으로 취임한 홍무상행 보살은 "말은바 임무를 소신껏 할 것이며 4대 서지비화 회장과 임원진들의 그동안 수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에 변화하고 발전하는 청계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한여름의 더위가 무색하리만치 산들바람이 불던 지난 7월 28일 청계사 야외법당에서 학장 성행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성담, 명원스님과 불자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청계불교대학 수계법회 및 연비의식을 봉행했다. 법사 성행스님은 중간 점검 차원의 이번 수계법회에 5계(1. 불살생계, 2. 불투도계, 3. 불음행계, 4. 불망어계, 5. 불음주계)를 지킬 것을 설하며 "수계는 밥 먹듯이 받는 것이 업장소멸의 지름길이며 내 스스로의 점검의 시간이자 깨끗하게 다들어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후 연비의식을 행하여 따끈한 찰나에 5계를 다시 되새기며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 나기를 서원했다. <글 박문성행>

역으로 남길 바란다.



<어린이법회 김연지학원생님>

어린이법회

"자 떠나자! 여름 캠프"를 마치며

지난 7월 31일~8월 2일(2박3일)까지 하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청계사, 광주 김상사 어린이, 청소년 50여명이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 첫째 날 김상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뒤 안전교육과 기초 습의, 인제식, 조별활동, 합장주 만들기 등을 하

였다. 둘째 날 새벽예불과 명상을 하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저녁에는 레크레이션과 캠프아이어를 하면서 모두 함께 어울리며 친해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동의 하늘에 뜬 행만 같은 보름달을 보며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쫓붙이식을 하였다. 셋째 날 역시 피곤한 몸으로 새벽예불에 모두 참여하고 회향식을 하며 김상사법우들과 아쉽게 헤어졌다.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웠던 여름캠프가 좋은 추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음의 치유 자연과 함께한 야외법당의 '108배'

폭음이 절정을 이루던 8월8일, 9일 청계사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명원스님의 지도법사로 1박 2일 동안 진행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안내, 사찰예절 및 습의를 마치고 발우

공양 후 저녁예불에 참석하여 108배를 한 다음 자유 시간을 가지고 취침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새벽예불에 참석한 불자들은 열반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 시간 동안 경기 명상하고 아침공양, 차담(스님과 대화)을

한 후 1박2일의 템플스테이 회향식을 했다. 동참한 최고령 김창환(70세)불자는 "어려서부터 불교와 많은 인연으로 많은 사찰을 다녔고 몇일씩 기도 해보았지만 템플은 처음이고 야외법당에서의 108배는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법당

안에서의 108배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으며 기회가 되면 또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글 조여래장>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29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 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며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획지면으로 떠나는 '108성지 순례'는 25개 교구본사를 순례하고 '관음성지' '지장성지' '미륵성지' 주요 영험 기도처별로 찾아 나서, 신도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관음성지⑤ 신륵사



◇보물 제1791호 신륵사 극락보전의 아미타여래삼존불.

신륵사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282번지 남한강이 흐르는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불자들은 물론 주말이면 일반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사찰이다.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원효대사의 꿈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지금의 절터에 있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사람이 설 곳이라고 알려주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 말에 따라 연못을 매워 절을 지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원효대사가 7일 동안 기도를 올리니 아홉 마리의 용이 연못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절 이름에 관한 전설도 있

다. 고려 우왕 때, 여주에서 신륵사에 이르는 길의 마암(馬巖)이라는 바위 부근에서 용마(龍馬)가 나타나 피해를 주자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를 가지고 그 말을 다스렸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고려 고종 때 마을에 사나운 용

에서는 나옹선사에게 밀양 땅 영원사(瑩原寺)로 떠나라고 했다. 가는 중에 병이 깊어 신륵사에 들었고, 1376년 5월 입적했다. 세수 57세 범람 38세였다. 신륵사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과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며, 지

나옹선사 이름 딴 '나옹예술제' 매년 개최 임진왜란 때 승군 조직하여 왜군에 맞서

마가 나타나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인당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순해했다고 한다. 신력으로 제압했다 하여 신륵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물 제1791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륵사 목조 아미타여래삼존상이 주불이며 협시불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다. 신륵사를 말할 때 나옹선사를 빼놓을 수 없다. 신륵사를 유명하게 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나옹선사는 고려 말의 뛰어난 승려였다. 출생담, 출가담, 풍수담, 도술담 등이 전해질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용문산, 원적산, 금강산 등에서 수도한 뒤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 공민왕으로부터 금관가사와 내외법복, 바리를 하사받았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왕사로 추대했으나 회암사를 중수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낙성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업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유학자들의 탄핵이 이어졌고 급기야 조정

역문화회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나옹선사의 이름을 딴 나옹예술제를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신륵사는 임진왜란 때 승군을 조직해 싸웠고, 이때 극락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소실되었으며 지금의 신륵사 건물은 현종 12년(1671) 무렵부터 다시 일으킨 것들이다. 현존 당우로는 금당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조사당(보물 제180호), 명부전, 삼검당, 적묵당, 노전, 칠성각, 종각, 구룡루, 시왕전 등이 있다. 또한 다층석탑(보물 제225호), 다층전탑(보물 제226호), 보제존자석종(보물 제228호), 보제존자석종비(보물 제229호), 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 석등(보물 제231호) 등과 같은 문화재들이 있다. 지공·나옹·무학 등 3대사의 덕을 기리고 법력을 숭모하기 위해 영정을 모셔 놓은 조사당은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세 분은 서로 관계가 돈독했던 스승과 제자로 고려 말에 빛나는 스님들이었다. <정리 여택진>

사찰음식 배워보기

나라리 버섯구이

재료:나라리버섯 200g, 진간장 2큰술, 조청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고추장 1작은술

다.② 나라리버섯은 꼬리 부분을 손질한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수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짠다.③ 물기가 제거된 나라리버섯은 반으로 포를 뜬다.④ 간장, 고추장, 깨소금, 참기름, 조청으로 양념하여 혼합한 다음 준비한 나라리버섯을 손으로 주물러서 양념이 배도록 한다.⑤ 양념된 버섯을 팬이나 석쇠에 노릇노릇 구워낸다. <정리 주은숙>

<만드는 법>

① 생 나라리버섯은 회색빛이 나고 굵고 통통한 것으로 선택한



중국 진 나라 무제 때의 일이다. 어느 이른 아침 숲은 매우 고요했다. 떠오르는 태양이 대지, 숲 그리고 평원을 밝게 비추었다.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커다라면서도 민첩한 두 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왼 손에 활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 쪽 엉덩이에 화살 통을 차고 있었다. 한마디로 활기차고, 강인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학문과 신선술에 숙달

불살생과 방생의 공덕

생명사랑 이야기 100

18)어미 사슴

“새끼가 죽자 어미도 같이 쓰러져”

되어 훗날 허진군(許眞君)으로 존칭 되어 불리던 허손이었다. 평소 드넓은 야외를 사랑했고, 특히 사냥을 좋아했던 터라 그날도 이른 아침 숲에 갔던 것이다. 그 때 새끼 사슴이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자 새끼 사슴은 거의 활시위 소리가 들리자마자 쓰러졌다. 허진군은 자신의 활숨씨에 매우 만

족해하며 사냥한 새끼 사슴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새끼 사슴의 어미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어미 사슴은 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죽어가는 새끼의 상처를 혀로 핏아 주었다. 허진군의 겨냥은 너무도 정확했다. 그가 쏜 화살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새끼 사슴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끼 사슴이 죽자 그 어미도 곧이어 쓰러져 죽

은 것이다. 충격에 빠진 허진군은 어미의 시체를 살폈다. 그는 왜 어미 사슴도 갑자기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사냥감을 뽑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미의 시체를 열어보았다. 놀랍게도 어미의 내장들이 한 치 썩 작은 조각으로 날날이 부서져있었다. 새끼가 죽은 것이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어미의 내장들이 파열해 버렸던 것이다. 허진군은 그가 저지른 일에 가슴

성행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생애 30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마음밭의 경작
음식 주위로 늘어진 마을 사람들에게 까새바라드와자는 자랑스럽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다. 마침 걸식을 나서다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본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가 한쪽에 섰다. 음식이 바닥을 보일 때 쯤 바라문이 탁발하려고 기다리던 부처님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발 게으름뱅이로 보였던 부처님이 못마땅하여 “사문이며,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거드름이 잔뜩 묻는 말투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문이며, 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부처님은 게으름으로 말씀하셨다. 믿음의 씨앗, 감관을 지키는 단비 지혜는 나의 명애와 쟁기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삼매는 끈 정념(正念)은 나의 쟁기날과 물이 막대 뭉가짐을 삼가고 밭을 삼가고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하며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낫을 삼고 은화함으로 명애를 내려놓습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아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게으르고 불품없는 사문으로만 알았는데 운율이 갖춰진 그의 게으름은 너무나 감미로웠다. 까새바라드와자는 청동 그릇에 우유죽을 듬뿍 담아 내밀었다. 바라문의 호의에도 부처님은 음식을 받지 않고 다시 게으름으로 말씀 하셨다. 게으름을 잃고 음식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건을 갖춘 이가 하지 못할 진 깨달은 이 가르침의 대가 바라지 않나니 그저 진실에 머물며 밭을 실천할 따름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한 이들 바라문이며,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소서 모든 번뇌 잠재운 고요한 성자 바라문이며, 그 밭에 씨를 뿌리소서 까새바라드와자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부지런 한 그는 오래지 않아 최고의 청정한 삶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였다.

우리절 명장면



◇미래의 희망 천진불과 함께한 회주종상스님. <사진 명원스님>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약사재일 기도
음력 매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약사 여래 본원경)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성담스님 법문)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성전스님 법문)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교양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30분
- ◇ 문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 109-030451-01-055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침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우리는 자연 지킴이 !!!

작은 기쁨도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늘~ 도움만 받고 있는 우리가족이 지역 사회발전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 싶어 고민하여 기획된 프로그램이 "우리는 자연 지킴이"이다



김으로 인지하는)기다려주고, 다시 손을 잡고 걸음을 걷다가 쓰레기(담배꽂이)가 보이면 짝의 손을 잠시 놓고 쓰레기를 주

위 쓰레기 봉지에 담고는 진행한다. "열심히 활동 한 사람은 느끼리라" 우리가족들이 좋아하는 간식시간은 작은 기쁨도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낙수 돌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족들의 작은 노력과 희생이 청계산의 자연보호에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라는 희망 아래 흘리는 땀을 닦으며 공간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피하여 테크로드에 도착하여 시원한 청계산의 산바람과 함께 성취감을 느껴본다

<사회재활 팀장 서효정>

2015년 7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Table with columns: 구분, 금액, 수 입, 지 출, 전월이월금, 차월이월금. Total income: 4,206,790; Total expenditure: 3,468,875.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15년 7월 1일~2015년 7월 31일)

- (직접납부) 후원금: 5,000원-정계영, 김중호, 가진, 최명자... 10,000원-한영영, 김순임, 이용선, 손선중, 김학기...
(지동납부) 후원금: 100,000원-청계사신도회, 메트로병원정제식장... 50,000원-진향기, 서미영, 안혜경...
(지로납부) 후원금: 20,000원-최정순, 김경자, 김정자, 김한용, 김대용, 이인숙... 10,000원-김정자, 김정자, 김한용, 김대용, 이인숙...

* 특별 후원금 명단

㈜메스트 1,000,000원, 경기도장애인시설복지협회 60,000원, 금융위원회 사랑봉사단 400,000원, 무원스님 100,000원

* 물 품 후 원

㈜산돌 위생신-미니리8박스, 치커리10박스, 버섯7박스, 찜재소2박스, 가지1박스, 호박3박스, 부추2박스, 파4단, 우양1단, 오이1박스, 감자2박스, 경기도-순소독제 70ml 50개, 까치카센터-신라면2박스, 양말64개, 청계동주민센터-양말33개, 원주추어탕-추어탕20인분, 임유경의2명-참외1박스, 천도복숭아1박스, 수박1통, 의왕시자원봉사센터-선풍기2개, 군포우체국 연합회-화장지3팩, 과자2박스, 애플리터8개, 곡유지2박스, 락스3

* 자비 나눔 저금통

치빨리노피자 인덕원점-34,370원, 보현행-29,830원 윤예원-24,890원, 익명-25,000원

새 후원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등불

백행의 근본 "효"

불교에서 효(孝)는 부처님의 자비롭고 올바른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선의 방법이라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님 은혜를 갚고자 등에 업고 수미산을 수백 번 돌아 밤에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깎여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셨다.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목련은 이를 보고 슬피 울었다는 우란분경 경전의 이야기는 백행의 근원이 되는 부처님 제자인 목건련의 효도 이야기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마다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라. 현세의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칠월 십오일에는 우란분재를 행하여라.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칠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구를 지어서

'효' 부처님의 가르침, 행동으로 옮겨 소중한 가족 의미 새겨, 밝고 건강한 공동체 지향

대표적이다. 부처님께서는 유독 효를 가리켜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이 말은 불자가 효를 행하면 모든 계품을 일심에 구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우란분재(백중)도 바로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을 기원한 제이다. 이는 효를 중요시 여긴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 굶고독원에 계셨다. 그 때 대목건련은 처음 육신통을 입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낳아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깨달은 눈(도안)으로 세간을 살펴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죽어서 아귀로 태어났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차마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목련은 슬픔을 가다듬고 발우에 밭을 가득 담아 아귀가 된 그의 어머니에게 잡수시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발우의 밭을 받아들고서 왼손으로는 다른 아귀들을 쫓고 있었으며 오른손으로는 밭을 움켜먹고 있었다.

그러나 밭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검은 이미 불덩어리가 되니 그의 어머니는 끝내 음식을 먹을 수 없었

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울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여라. 모든 불자라면 마땅히 이 법을 받아들여 행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면 문득 현재 부모의 수명은 백년에 이르고 병이 없을 것이며 모든 효심을 기원한 제이다. 이는 효를 중요시 여긴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의 전생 부모의 은혜에 대해 돌아보고, 후손들에게 연기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은 효도의 관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또한 집안에서 은가족이 함께 [무량수경][우란분경] [부모은중경]을 독경하거나 사경을 하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새긴다면 부모에 대한 효심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 진정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가족사회공동체로부터의 출발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자 실천덕목이라 할 것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품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달의 후원금 금 4,206,790원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 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후원자분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 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 분은 녹향원 - 031)426-6698 청계사 - 031)426-2348, 222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6월 봉사자 명단 단체 청계자유타로프학교 봉사단, 녹향원모임 군포우체국 연합회, 용화사 보현회 가족 이주용가족, 김우식가족, 박해숙가족 성인 이재영, 권지영, 강현정, 서순옥, 김영자, 오인희, 신현숙, 이석훈, 장병수, 이석진, 이영진, 조성범, 최은경, 윤여석, 김윤진, 유병덕, 김봉희, 안재욱, 김성주, 이인혜, 강명옥, 임혜원, 길은영 학생 한지현, 김다은, 이지현, 박재현, 장인아, 장종영, 박호현, 임규원, 홍석연, 홍석재, 최신아, 정승연, 이다영, 정종진, 김경태, 송승근, 이준표, 조원희, 박예나, 강경필, 김장수, 김상재, 송진권, 송진욱, 탁호민, 김용환, 김시혁, 김근형, 이인혜, 이정민, 김영빈, 이동현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공덕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운)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달의 운세 재리로 보는 <정리 공은자>

Table with 8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column contains a brief fortune prediction for that sign.